

# 요양병원 · 복지시설 안전불감증 여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요양병원 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밀양화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26일부터 21일까지 16일 동안 요양병원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104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펼친 결과

광주시, 민·관 합동 점검...423건 무더기 적발

소화기 점검포 미부착 · 피난기구 미설치 등

423건을 적발했다. 시정 347건, 권고 37건, 현지시정 39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 전기, 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관(노숙인시설)

은 소화기 점검포 미부착 등으로 현지시정 4건이 적발됐다.

노인복지시설은 피난기구 미설치 등 현지시정 5건, 장애인복지시설은 매뉴얼 미정비 등 현지시정 5건·미끄럼대 설치 등 권고 2건, 요양병원

은 피난기구 유지 관리 철저 등 시정 347건·피난 통로 확보 등 현지시정 25건·피난유도시설 정비 등 권고 35건 등이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달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위험시설과 일반시설 6300여 곳을 점검하고 대형공사장이나 급경사지 등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도 펼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 광주·전남 '핵폐기물 의심 택배 배송' 소동

광주·전남지역 우체국으로 '핵폐기물 의심 소포'가 배송돼 경찰과 소방당국 군 부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께 광주 서광주우체국에 배달된 택배 소포가 핵폐기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포 발송인은 '대전시민 일동', 수신자는 '윤장현 광주시장'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경찰과 소방·군 당국이 방사선 측정기와 탐지견 등을 동원해 소포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소포에는 핵폐기물 마크가 붙은 노란색 강통과 신문지가 들어 있었으며,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쇄물도 포함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02분께 무안군 남악우체국에도 발송인에 '대전 시민 일동'이라고 적고 수취인에 '이재형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표기한 택배 소포가 들어왔다.

경찰 폭발물처리반 등이 조사한 결과 해당 소포에도 광주에 배송된 내용물과 같은 강통과 인쇄물이 들어 있었다.

이들 택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기를 앞두고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원불교환경연대와 영광탈핵공동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만들어 보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소포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택배 발송처의 관할 경찰서에서 발송 경위 위법성 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광주·남악우체국은 "모 환경단체가 지역 기관장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라"는 우정사업본부의 지침에 따라 대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호 기자



북적이는 모란시장 새 동지

전국 최대 5일장인 '모란시장'이 28년만에 새 동지에서 재개장한 24일 오전 경기 성남역수 공공주택지구 내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모란시장이 장을 보러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금호타이어 “노조 합의안 거부는 법정관리 선택...입장 바꿔야”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노동조합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이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매각 반대를 이유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채권단이 제시한 26일 시한까지 협약 체결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조의 무책임하고 위함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를 위한 노조의 입장 변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해 12월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조건부로 1년 연장하면서 오는 26일까지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지구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

다. 채권단은 협약 체결 실패시 차입금 연장 등의 유동성 대책을 소급해 무효화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측은 "노사가 지난 1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의견 집근을 이뤘지만, 노조가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해외 매각 철회를 전제로 협상을 갑자기 중단하고, 합의 불가를 선언한 것은 사실상 경영정상화를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이라며 "이는 회사와 동료 직원 지역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내모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은 회사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하며 눈앞에 닥친 법정관리와 구조조정의 위기를 피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빈약 26일까

지 채권단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노사가 논의했던 경영정상화 방안보다 더욱 가혹한 구조 조정안이 노사 모두를 덮쳐 이후 회사의 회생과 정상화에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사측은 "노조가 협약 체결까지 남은 하루 동안 모든 구성원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다시 협상태이블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형택 기자



## 여수 해상서 어선-바지선 충돌...2명 숨져

23일 오후 5시 55분께 여주시 신월동 히든베이호텔 30m 앞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 H호(1.99t·승선원 2명)가 통나무 재질의 조개류 선별 작업 바지선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신장 김모(42)씨와 임모(44)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해경은 이들이 충돌 충격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호는 이날 오후 5시 14분께 조업차 여주시 신월동 항포구에서 V-pass로 출항했으며, 출항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정지해 있던 해상 바지선과 충돌사고가 일어났다. 해경은 예인선을 이용해 H호를 출항지인 신월동 항포구로 이동 시켰다.

여수=송기홍 기자

## 수산물창고 암모니아가스 누출 1명 부상

23일 오전 10시8분께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한 수산물 냉동회사의 보관창고에서 10kg 가량의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 사무실에 있던 김모(45·여)씨가 가스를 흡입,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추가 누출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한 뒤 물을 뿌려 암모니아 가스를 희석하는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밸브이음새 노후로 인해 가스가 누출된 것이 아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음주 운전 40대 주차 차량 7대 들이받아

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2% 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잔소리 한 친형 흥기로 찢려 숨지게 한 20대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함께 술을 마시던 친형을 흥기로 찢려 숨지게 한 A(24)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친형(30)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깨 형의 목 부위를 두 차례 찢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흥기에 찢린 A씨의 형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뇌출혈로 부병 중인 아버지의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형이 잔소리를 하자 이 같은 발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구급차서 구급차 직원이 환자 유사성 행위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실내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I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30대 사설 구급차 직원이 구급차 내에서 A(20·여)씨의 가슴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의식은 있으나 몸이 마비된 전황에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KFS 한국농어촌공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구모화사업

**fb**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구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